

빅터 호르타의 주택설계에 나타난 근대적 특성에 관한 연구

Modern Characteristics of Victor Horta's Domestic Architecture

황 보 봉*

Hwangbo, A. B.

Abstract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many architects still practised eclectic design elements. Emergence of new building materials such as steel, concrete and glass were not yet found fresh roles in architectural design. It was Brussels that the use of modern materials gave rise to their new forms and gave influence to not only building skins but also spatial organization. Art Nouveau architecture is often seen as revolutionary and pioneering modern architecture against eclectic classicism prevalent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Despite the fact that some scholars point out that Art Nouveau is more a transient phenomenon than modern architecture proper, no one would deny that Art Nouveau carries a good deal of modern characteristics. This paper intends to show rather ambivalent perspectives upon Art Nouveau architecture. Although it insinuates overly dynamic nature in architectural languages, it does not hamper us from reading Art Nouveau as a vital component of modern architecture. Through a careful analysis of the early domestic designs of Victor Horta, it becomes evident that his work can provide modern architecture a meaningful alibi for its growth. Victor Horta's house design is well known to the public, both for his classical tastes and for its changing implementation. Horta's modern quality is never adequately recognized, partly due to his eye catching modern iron properties and sinuous ornamentation. This paper tries to offer an insight into the complicated stage set of the fin-de-siècle through the work of Victor Horta whose influence has been immense in the making of modern architecture.

키워드 : 아르누보, 근대적 건축재료, 공간구조, 자연채광, 아트리움

Keywords : Art Nouveau, Modern Material, Spatial Organization, Daylighting, Atrium

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벨기에의 빅터 호르타 (V. Horta, 1861-1947)를 시작으로 프랑스의 엑토르 귀마, 스페인의 안토니오 가우디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찰스 레니 맥킨토시로 대표되는 아르누보 건축은 19세기말 서유럽 전역에서 급하게 성장했다. 이들 건축가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가 공통되는 건축언어를 사용하며 고전적인 건축으로부터 탈피한 획기적인 디자인을 선보였다. 아르누보는 예술상 빙(Sigfried Samuel Bing, 1838-1905)이 1895년 파리에서 개점한 Maison de l'Art Nouveau에서 비롯되지만 그 기원은 1893년 호르타가 브뤼셀에 설계한 타셀주택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타셀주택을 효시로 아르누보 건축은 두드러진 디자인 덕분에 건축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불과 10여 년 뒤 아르누보는 일상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과도한

자기표현과 장식 그리고 지나친 상업적 관심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해 급격한 몰락을 맞이한다. 한편, 10여 년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빛을 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르누보 건축은 근대건축 발전과정에 있어 역사주의를 탈피한 최초의 건축양식이라는 평가¹⁾와 동시에 근대건축으로써의 가치는 철과 유리의 사용이라는 우연에 의해 예기치 않게 발생한 것이라는 극단적인 평가가 공존한다.²⁾

아르누보가 역사주의로부터 탈피한 최초의 건축양식이라는 평가는 여러 학자들의 저서로부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다.³⁾ 학자에 따라서는 근대건축에 있어 독창성이 가장 두드러진 양식으로 보기도 한다.⁴⁾ 근대건축으

1) W. Curtis (1996) *Modern Architecture since 1900*. London: Phaidon, p. 54; B. Bergdoll (2000) *European Architecture 1750-1890*.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p. 279

2) D. Sharp (2002) *Twentieth Century Architecture: A Visual History*. Victoria, Australia: Image Publishing Group, p. 17

3) J. Fleming et al., (1991) *Dictionary of Architecture*. London: Penguin, p. 19; B. Bergdoll (2000) *European Architecture 1750-1890*.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p. 279; A. Colquhoun (2002) *Modern Architectur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p. 13

* 정회원, 서울산업대학교 건축학부 조교수, 건축학박사 (hwangbo@snut.ac.kr)

로서의 가치를 우연히 획득했다는 주장은 과도하게 아르누보의 의미를 축약하는 경향이 있지만, 한편으로 아르누보 건축을 근대건축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전이적인 현상으로 보는 이도 있다.⁵⁾ 사실 역사주의로부터의 탈피라는 평가 또한 엄밀히 살펴보면 역사적 산물로서 건축의 자기부정이라는 내재된 모순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근대건축으로써 아르누보 건축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유럽 도시환경의 구조적인 변화와 새로운 건축재료의 등장 배경으로 등장한 아르누보 건축의 근대적 특성을 벨기에 건축가 빅터 호르타의 초기 주택설계를 통해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호르타 작품의 건축적 특성은 아르누보 건축을 근대건축 최초로 등장한 체계적이고 독자적인 양식으로 파악하는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호르타 작품의 재평가를 통해 아르누보 건축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치와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아르누보 건축이 등장한지 100여년이 지난 오늘의 시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현대건축이 보여주고 있는 과도한 자기표현적 양상을 이해하는데에도 좋은 역사적 선례로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호르타가 설계한 건축작품중 주택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시기적으로는 1893년부터 1902년까지 10년간에 걸쳐 완공된 작품으로 한정했다. 주택을 연구대상으로 택한 것은 아르누보 건축의 성격과 특징이 주택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잘 나타나기 때문이며 동시에 호르타 작품의 특질이 가장 잘 표현된 것도 주택이기 때문이다. 호르타의 주택작품들은 천창과 아트리움의 설치를 통한 실내 건축환경의 최적화를 비롯해 철과 유리의 대담한 사용을 통해 획득한 투명성과 가시성 그리고 목재와 석재를 비롯한 다양한 재료가 혼합된 대담한 표현을 통해 물리적·심미적 쾌적함을 선사한다. 호르타 작품에서 이런 특징은 우연이나 일회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든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1893년을 연구시점으로 정한 것은 타셀주택의 설계를 통해 호르타의 주택설계의 방법이 기존과 견주어 확연히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1902년 막스 할레 주택을 연구시기의 종점으로 삼은 것은 그 이후 호르타가 발표한 작품들이 이전과 비교해 두드러진 변화가 없을뿐더러 후기로 갈수록 오히려 고전적인 건축언어가 재등장하는 등 아르누보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초기 작품들만큼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4) P. Nuttgens (1993) *The Story of Architecture*. London: Phaidon, p.251

5) F. Aubry & J. Vandenbreenen (eds.) *Horta: Art Nouveau to Modernism*. Ludion Press, Ghent, 1996 책의 제목에서 드러나듯 아르누보와 근대주의는 서로 다른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다.

2. 브뤼셀의 건축적 상황

2.1 역사도시 브뤼셀의 변화

호르타의 건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건축이 잉태되도록 한 도시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즉, 그의 건축이 보여주는 디자인의 과장된 몸짓은 자연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연출된 큰 변화의 물결 속에서 나타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중세의 정취를 강하게 풍기는 역사도시 브뤼셀은 18세기와 19세기를 거쳐 근대도시로써 급하게 변모해간다. 도시공업화의 영향과 자본의 축적으로 인한 부르주아 계급의 성장은 벨기에 국왕 레오폴드 2세(1865-1909)의 전격적인 후원에 힘입어 전차의 도입 및 주요 도로의 건설 등으로 브뤼셀은 근대도시로서의 면모를 일찍이 갖추게 된다. 1875년 만들어진 브뤼셀의 도시계획안(案)에는 광장을 중심으로 기념비와 도로가 방사선의 구조로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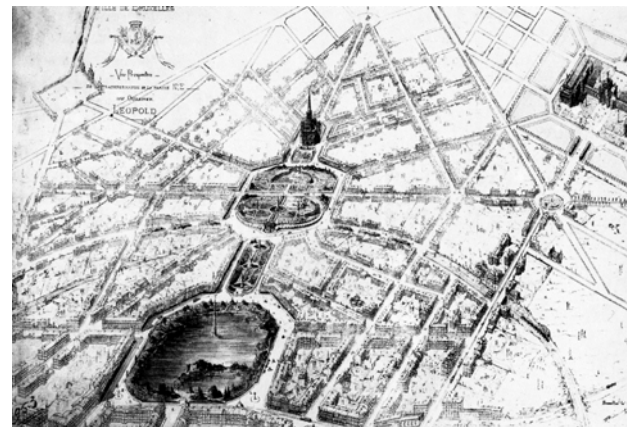


그림 1. 브뤼셀의 근대도시계획안, 1875년 (Brussels City Archives 소장)

이러한 도시상황은 브뤼셀의 건축가들로 하여금 고전적인 건축언어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시구조에 걸맞은 건축언어를 자연스럽게 추구하게 했으며, 아르누보 건축은 호르타라는 건축가의 뛰어난 창작력과 함께 당대의 도시상황이 함께 빚어낸 산물로 이해될 수 있다. 호르타가 설계한 주택들이 대부분 도시의 주요가로 혹은 이면도로의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의 폭은 좁은데 비해 깊이가 깊은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바로 근대적 도시환경에 의해 주어진 대지조건이며, 런던과 파리와 같은 대도시들의 그것과 유사한 맥락을 지니고 있다.

2.2 브뤼셀의 건축적 토양

근대도시로써 브뤼셀은 도시구조의 변화 및 근대적 이기의 도입과 함께 그 내면의 변하지 않는 혹은 변화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고전적인 혹은 전통적인 가치가 공존하고 있었다. 건축적으로는 고전주의 건축 혹은

절충적 건축이 벨기에 전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양식이었으며 그러한 건축적 토양은 젊은 건축가 호르타를 만들어내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19세기 중반 절충주의 건축으로 명성이 높았던 벨기에 건축가 베이에르 (Hendrik Beyaert, 1823-94)가 브뤼셀에 설계한 샤프트 주택 (Maison des Chats, 1872-4)은 19세기말 절충성향의 브뤼셀의 주택건축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작품이다. (그림 2) 가로에 면하는 주택의 전면은 한정적인 반면 가로 뒤로 대지가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정된 파사드를 통해 건물의 품위를 적극 표현해야 되는 과제를 건축가가 맡게 된다.



그림 2.
샤프트 주택
(Maison des Chats)
H. 베이에르 작
(1872-4)

이러한 조건 덕분에 건축가들은 전면 파사드(façade)를 가장 두드러진 방식으로 주변에 드러나도록 의도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아치와 오더 그리고 발코니 등 다양한 고전적 건축언어를 혼재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베이에르 외에도 J. 바에스, 반 리셀베르그 (1855-1929), 그리고 J. 포엘레르 (1817-1879) 등이 특히 절충식 언어가 두드러진 작품으로 잘 알려진 건축가들이다.

2.3 호르타의 초기 절충주의 작품들

호르타가 설계한 초기의 주택작품들 중에서 1885년 겐트(Ghent)에 건축된 세 채의 주택은 이태리 후기 르네상스의 영향이 크게 느껴지는 매너리즘적인 작품이다. 이 주택설계에서 주목할 부분은 그의 작품이 독자적으로 건축가 개인의 작품이기보다는 조각가 르로이(H. Leroy)와 화가 드위트(J. Dewitte)와의 공동 작업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그림 3)

이때의 경험 이후로 호르타의 주택건축에서는 조각과 회화작품들이 실내공간을 연출하는데 있어 주된 요소로써 강조되어 나타난다. 브뤼셀에서 이태리 매너리즘을 취한 건축가로는 알퐁소 바라 (Alphonse Balat, 1818-95)를 예로 들 수 있는데, 그는 호르타의 은사이기도 하다.



그림 3.
집합 주택
(Twaalfkameren
Houses) V. 호르타 작
(1885)

바라는 레오폴드 2세 국왕의 전속건축가이면서 브뤼셀의 도시구조를 프랑스 파리를 모델로 한 근대적인 구조로 재정비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바라는 프랑스의 이론가 비올레 르 뉁 (E. Viollet-le Duc)의 이론에 크게 영향 받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건축방법을 기반으로 한 설계를 했지만 한편으로 근대적인 구조공학 기술의 반영에 불구하고 고전적인 건축언어에 계속 의존하고 있었다. (그림 4) 바라는 특히 철과 유리를 적극 활용한 벨기에 왕립 식물원(온실, 1874)을 설계했는데, 신재료를 통한 새로운 유형의 건축이 탄생한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부분이다. 가장 인위적인 재료를 통해 가장 자연적이고 보편적인 요소를 실내에 유입한 점은 혁신적인 성과가 아닐 수 없다. 호르타는 이후 바라의 건축으로부터 지속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그림 4.
모자르 예술원
Palais Beaux-Arts
알퐁소 바라 작 (1870s)

호르타가 1887년 설계한 벨기에 자연사박물관계획안은 바라의 영향이 크게 느껴지는 작품이다. 고전절충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것으로 1890년대 이후 호르타의 작품과는 연관관계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성향을 보여준다. (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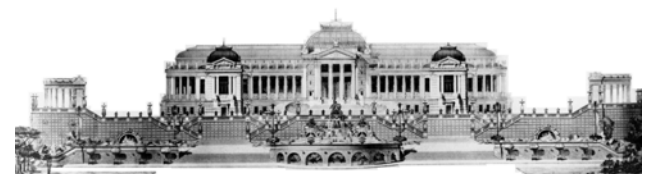


그림 5. 브뤼셀 자연사박물관 계획안 (V. 호르타 작, 1887)
(Brussels Natural History Museum)

3. 근대건축으로써 아르누보

3.1 아르누보 건축의 등장

브뤼셀이 지니고 있는 고전절충적인 건축풍토에 반해 철과 유리 그리고 콘크리트로 대표되는 근대 건축재료의 일반화는 도시구조의 변화와 함께 브뤼셀의 건축적 변화를 가져온 주요한 요소였다. 호르타에게 있어 철과 유리는 인류가 만들어 낸 최초의 인공재료로써 공업생산에 의해 대량화 그리고 모듈화가 가능해짐과 더불어 근대산업사회의 특성을 건축적으로 표현하는 더할 나위 없이 유리한 수단으로 받아들여졌다. J. 팩스틴이 설계한 런던의 수정궁(1850)과 구스타프 에펠에 의한 파리의 에펠탑(1889)은 이미 철과 유리에 의한 근대건축의 표상을 유감없이 드러낸 바 있다.⁶⁾ 수정궁의 유리는 근대건축의 성격을 전근대의 그것과 확연히 구분 지을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유리패널에 의한 벽체시공이라는 구조적인 가능성을 넘어 근대건축의 특질로써 투명성과 가시성을 제공했다. 또한, 에펠탑의 강철은 구조적인 재료로써 뿐만 아니라 장식적인 요소로도 철의 사용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철과 유리의 적극적인 사용을 통해 호르타 건축에서 나타나는 건축적 특색은 아르누보의 특성을 규정시키는 요소로 파악해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다. 호르타의 작품에서는 식물과 화초의 표현방식은 꽃이나 줄기의 이미지를 그대로 재현해내는 것보다는 특정한 부위 혹은 요소를 강조하고 세부적이고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경우에 따라서는 심하게 왜곡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실존하지 않는 형태까지도 만들어 내었다. 타셀주택 계단실에 그려진 백합은 그 형태가 과장되게 표현된 좋은 사례이다. (그림 6)



그림 6. 타셀 주택 계단 (Tassel House) V. 호르타 작 (1893)

비올레 르 뒱의 이론에 영향 받은 호르타는 건축에 있어서 강철의 사용을 외관으로부터 숨기거나 위장하려고

6) 벨기에 건축가 앙리 반 데 벨데는 에펠탑과 수정궁에 대해 근대건축의 새로운 미학을 드러내는 작품으로 논리적 형태와 이성적인 개념을 극찬한 바 있다. see H. van de Velde (1916:3) *Les Formules de la Beauté architectonique moderne*, Weimar, facsimile copy

하기보다는 재료의 실제기능을 솔직담백하게 표현하고 강조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시각은 비올레 르 뒱의 저서에서 나타나는 것과 견주어 호르타의 작품에서도 유감없이 드러난다. (그림 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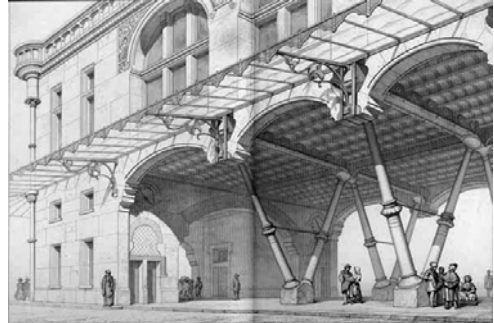


그림 7. 강철구조물 (Iron Structure) / E. Viollet-le-Duc 작 (1863)



그림 8. 호르타自宅 디테일 (1898) Horta Studio Facade Detail

3.2 호르타의 주택작품의 표면적 특성

호르타의 건축에 표현된 강철구조는 프랑스의 비올레 르 뒱 (E. Viollet-le-Duc)의 저서에 나타난 이미지들로부터 영향을 받았지만, 호르타의 건축은 훨씬 더 자극적이고 강렬한 효과를 낸다.⁷⁾ 식물의 자연적인 형태에서 비롯된 부드러운 모티프는 유선적인 부드러움과 동시에 목재와 석재, 강철 그리고 스테인드 글래스가 함께 자아내는 긴장감 그리고 입체적으로 배어나는 역동성도 공존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건물이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이는 착시현상까지 불러일으킨다. 호르타가 건축한 주택들은 도시의 부르주아지 계층의 건축주를 위한 것으로 철과 유리를 비롯한 다양한 건축재료를 통한 적극적인 건축적 표현은 근대적인 요소를 표현하는데 적절한 수단이었음은 물론 사회상류층을 상징하며 도시적인 감각을 연출하는데도 적격이었다.

이러한 표면적인 효과를 통해 아르누보 건축은 그 특질을 규정할 수 있지만, 철과 유리의 장식적 효과만으로 근대건축의 가치와 기여를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아르누보 건축을 근대건축으로 받아들이는데 인식한 것은 바로 표면적인 효과에 많은 이들이 주의

7) E. Viollet-le-Duc (1858) *Entiens sur l'architecture*, Paris

를 기울였기 때문이다. 근대건축으로서 보다 적절한 평가를 위해서는 건축공간의 구성과 연출이 과연 장식위주로 한정되었는가 하는 점을 확인해 봄으로써 이해가 가능하리라고 판단된다.⁸⁾

3.3 호르타 주택작품의 근대적 특성

3.3.1 천창의 설치와 온실의 기능

호르타는 작품을 설계하는데 있어 철과 유리를 표면적 효과만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건축물 전체가 이들 재료의 사용에 의해 영향을 받도록 하고 있다. 가장 뚜렷하게 눈에 드러나는 특징으로는 우선 주택의 최상층에 설치한 천창과 온실을 들 수 있다. 천창의 설치만으로 온실의 기능을 다한다고 할 수 없지만 천창의 설치는 실내 온도를 높이고 자연채광을 가능하게 하므로 일조량이 적고 습한 겨울이 오래 지속되는 벨기에의 자연환경을 극복하는 데에는 훌륭한 건축적 해결안이었다. 또한 새로이 구축되는 근대도시구조 그리고 좁고 긴 건축부지 등 불리한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기도 했다.

천창에 설치된 유리를 통해 실내로 유입되는 빛은 쾌적한 실내 환경을 연출하는 동시에 파사드에서 유입되는 빛과 더불어 실내를 자연광으로 밝게 유지시켜 줌으로써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는 역할을 했다. 특히, 계단실의 디자인을 통해 천창의 빛을 최대한 아래층으로 연장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철과 유리는 장식기능과 함께 반사재의 기능을 겸해서 실내는 항상 밝은 톤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기능한다. 바닥에 사용된 모자이크 타일의 타일조각 또한 보조적 기능을 한다. 브뤼셀의 도시가로 구조상 겪을 수밖에 없는 주택내부의 채광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건축적 장치로써 유리재료와 온실이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대상으로 삼은 주택들 모두 최상층에 천창과 온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의도된 결과이다. (그림 9, 10, 11, 12)

반 에트벨트 주택의 경우 천창아래 계단실의 규모가 전체 바닥면적의 절반에 달할 정도로 큰 면적을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내공간의 투명성이 극대화되도록 의도한 점 이외에도 브뤼셀의 근대도시구조가 소우주(microcosm)로써 주택내부에 상징적으로 투영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팔각형의 계단실을 통해 비스듬한 각도로 최상층에 도달하는 과정은 마치 도시공간에서 가로를 통해 광장에 접근하는 방식과 같은 구조이다. 그림 1에 표현된 광장과 가로의 구조는 그림 10에 나타난 반 에트벨트 주택의 계단실의 형태와 그 구조를 같이 한다. 이러한 공간연출을 통해 호르타는



그림 9. 반 에트벨트 주택 (천창 및 8각형 온실전경) V. Horta 作 (18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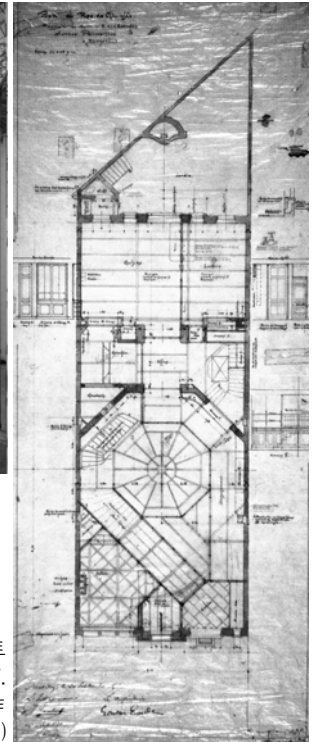


그림 10. 반 에트벨트 주택의 1층 평면도 V. Horta 作 (1895) (오른쪽)



그림 11. 오베크 주택의 천창 온실전경 V. Horta 作 (18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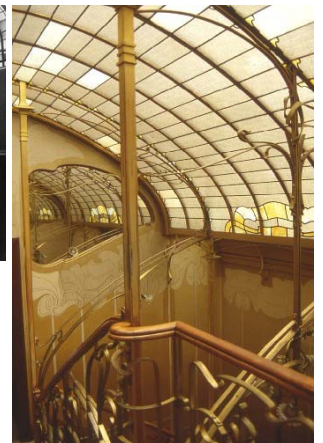


그림 12. 호르타 자택 천창전경 V. Horta 作 (18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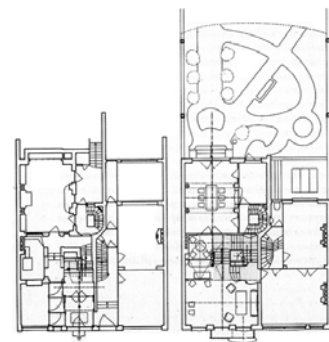


그림 13. 호르타 자택 평면도 V. Horta 作 (1898)

좁은 계단실 공간만으로도 충분히 역동적이고 변화가 느껴지는 실내공간 연출을 가능하게 했다.

타셀주택의 진입부(계단실)와 에트벨트 주택의 팔각형 거실과 호르타 자택의 계단실 그리고 술베이주택의 계단실 등은 외부공간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이상적이고 완전한 공간으로 철저히 격리된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대단히 감성적인 연출을 통해 미적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그림 12와 13에 나타난 호르타 자택은 치밀한 평면계획

8) 아르누보 건축의 장식적 특징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전제하고 더 이상의 상세한 언급은 생략한다. 자세한 논의는 Borsi, F. & Portoghesi, P., Victor Horta, Academy Editions, London, 1991 참고

과 섬세한 마감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에트벨트 주택만큼 크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독립된 공간으로써 계단실이 주택의 가장 가운데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주변의 공간으로 빛이 전이될 수 있도록 수많은 개구부가 마련되어 있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3.3.2 철 재료의 섬세한 표현

호르타 주택에 사용된 강철과 주철은 모두 장식적 경향이 강하고 심지어는 오브제의 성격까지도 느껴진다. 이렇게 강한 장식적 경향은 아르누보 건축이 근대건축으로 진화하는 단계에 머무른다는 지적을 받는데 주요한 원인으로 제공된다. 하지만, 호르타가 사용한 철의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특이하게도 면적인 구성은 아예 찾아볼 수 없고 모두가 한결같이 선적인 구성으로 되어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철의 가공과정상 우연에 의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호르타 작품이 지니는 투명성과 빛의 연출이라는 측면에서 해답을 찾아볼 수 있다. 즉, 유리천장과 철프레임에 의한 구조는 건물 전체의 투명성을 높이는 근대적 가치를 추구하지만, 동시에 철은 투명성과 가시성을 제한하는 비투시적 성격의 재료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즉, 철재료의 사용에서 호르타가 지속적으로 섬세한 디자인을 선보이는 이유에는 빛의 차단을 억제하고 그 효과를 디자인요소로서 활용하려는 전략이 숨어있다. (그림 11, 12 참조) 솔베이 주택의 파사드에 드러난 거대한 창과 발코니의 미려한 철제 난간은 실내에 유입되는 빛의 패턴을 만들어주어 전체적으로 건물의 투명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우아한 실내공간연출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한다. (그림 14, 15)



그림 14. 솔베이 주택 전경 (1894) / V. Horta 작



그림 15. 솔베이 주택 실내전경 V. Horta 작 (1894)

강철과 유리 석재가 혼합된 파사드는 그 자체로 완성도 높은 오브제 작품으로 보이고 자연채광이 깊게 드리우는 실내공간은 강철로 된 기둥의 주두장식과 벽화가 어우러져 고품격의 실내공간을 연출한다. 그림 14에서 알 수 있듯 실내에서도 공간을 구분하기 위해 벽체와 문을 설치할 때에도 호르타는 유리를 적극 사용했다. 빛의 실내유입을 의도해서 최대한 개구부의 면적을 넓히는 동시

에 빛을 걸러주는 철, 목재와 같은 재료는 디자인 요소를 강조했다. 호르타 작품에서 철의 사용은 일차적으로 구조적인 재료로써 사용되는 이외에 장식적 효과를 내기위한 용도로서는 대단히 주의깊은 연출이 필요했음을 알 수 있다.

3.3.3 석재와 스테인드글라스, 모자이크 타일의 사용

호르타의 주택에 사용된 석재 또한 고전적인 재료로써 구조와 장식적인 성격을 벗어나 훨씬 더 도발적이고 관능적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호르타는 건축재료로써 석재에 대한 신뢰를 벗어나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섬세한 시공이 필요한 작품을 많이 남겼다. 철과 유리를 주요재료로 선택하는 동시에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석재가 여전히 건축재료로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호르타의 태도는 충분히 이해될 수도 있다.⁹⁾ 호르타 자택을 비롯한 모든 주택에서 호르타는 철과 유리 못지않게 석재와 스테인드 글래스 그리고 모자이크 타일을 즐겨 사용했다. 석재와 강철의 조화는 마치 신체의 뼈와 살이 어우러진듯 자연스러우며 유리와 강철로 조합된 빛의 연출은 내외부 공간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기까지 한다. 호르타의 대표작인 타셀주택뿐 아니라 다른 주택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그는 강철과 석재의 조합 그리고 스테인드 글래스와 모자이크 타일의 대비를 통해 이전의 건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대담한 시도를 한다. 그리고 디테일의 완성도는 보는 이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원숙한 마감을 이루어 낸다. 이러한 높은 완성도를 추구하는 배경에는 유리를 통한 건물의 투명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디테일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호르타의 작품에 나타난 식물과 동물의 모티프는 자연의 이미지를 단순히 차용해서 만들어진 도배용이 아니라 실내공간의 연출을 밝고 미려하고 두드러지게 하기위한 시각적 장치로서 가시성과 투시성을 목적으로 했다. 즉, 새로운 건축재료로써 유리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연출해 내기 위해 다른 재료들과의 조화를 도모한 것이다. 호르타 주택에서 동식물의 디테일이 과장되게 표현되거나 심지어 가상의 식물이 등장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6. 호르타 자택 실내 디테일 V. Horta 작 (1898)

9) 최초로 철근 콘크리트가 사용된 건축물은 건축가 A 페레가 1902년 파리에 설계한 프랭클린街 아파트로 1902년 이후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일반화되기까지는 십여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다.

다음 도표 1은 본 논문이 연구대상으로 삼은 아홉 채의 주택을 시간 순으로 간략히 정리한 도표이다.

표 1. 호르타의 초기 주택작품

순번	전경사진	작품명	주요한 건축적 특징	장소 / 건축년도
1		트와르프카르멘 연립주택 Twaalfkameren Townhouse	호르타의 고향인 겐트에 세워진 3채의 연립주택이다. 가장 초기작품으로 16세기 이태리 매너리즘 영향이 크지만 한 가지 건축적 양식을 추종하기보다 여러 가지 양식이 혼재된 절충식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Ghent, 1885
2		오토리크 주택 Autrique House	브뤼셀의 절충적인 건축경향과 결별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파사드에 나타나는 좌우대칭적인 디자인과 창틀의 디테일은 베이에르가 설계한 샤프트주택과 유사한 구성을 보여준다.	Brussels, 1893
3		타셀주택 Tassel House	아르누보 건축의 특질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작품으로 같은 해 발표한 오토리크 주택과 대비된다. 풍부하고 화려한 연출이 돋보이며 계단실의 미려한 구성은 근대건축사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다. 호르타가 설계한 주택중 가장 세련되고 독창적인 동시에 건축언어가 정제되고 절제된 걸작이다.	Brussels, 1893
4		솔베이 주택 Solvay House	타셀주택에 비견될 정도로 우아하고 품위 있는 작품이다. 외관에 드러나는 거대한 창문만큼이나 실내로 빛의 유입이 많으며, 실내공간연출에도 투명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Brussels, 1894
5		반 에트벨트 주택 van Eetvelte House	설계 당시 브뤼셀의 도시공간을 주택에 축소해서 표현한 것으로 생각될 정도로 유사한 개념을 적용했다. 실내공간을 즐겁게 순회할 수 있도록 복도공간을 적극 연출했으며, 팔각형의 계단실을 통해 다양한 공간감을 강조했다.	Brussels, 1895
6		호르타 자택과 스튜디오 Horta Home and Studio	자신의 주택과 설계스튜디오 용도 두 가지를 위해 만든 것으로 비대칭적인 파사드 구성이 인상적이며, 실내장식에서 백합의 꽃받침과 수술이 과장되게 표현되어 있다. 중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은 장식요소도 여러 가지 존재한다.	Brussels, 1898
7		오베크 주택 Aubecq House	외부 발코니와 스테인드글라스로 처리된 창문 디자인 그리고 수직성이 강조된 실내공간의 디테일이 매우 섬세하게 처리되어 있다.	Brussels, 1899
8		드브와 주택 Fernand Dubois House	조각가 페르난도 드브와의 주택으로 파사드는 비대칭구조로 되어있고 외관상의 표현은 앞선 작품들에 비해 절제되어 있다. 호르타의 자택처럼 주택과 작업실을 서로 연결시킨 구조이며, 작업실 스튜디오 위에는 천창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호르타는 이 주택 외에 Sosoye교외에도 드브와의 별장 (1905)을 설계했다.	Forest Brussels, 1901
9		막스 할레 주택 Max Hallet House	호르타의 작품에서 벽화가 실내장식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하는 마지막 작품이다. 장미로 장식된 벽체는 모자이크 바닥과 어우러져 역동적인 실내공간을 연출한다.	Brussels, 1902

4. 결론

본 논문은 아르누보 건축의 대표격인 벨기에 건축가 빅터 호르타의 주택설계에 나타난 건축적 특성을 통해

그의 건축이 고전주의적 색채를 배격한 급격한 근대건축 혹은 근대건축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전이적 현상이라는 기존의 시각을 수정하고 근대과학기술과 도시 구조속에서 탄생한 최초의 체계적인 근대건축으로 그 가

치를 재평가했다. 본 논문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호르타의 주택작품 아홉 채는 모두 개별적인 특징이 강한 작품 들임에 불구하고 모두 다 매우 치밀한 건축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호르타의 주택설계에 나타난 근대적 특성은 1890년 이전의 경우 일정한 양식이나 형식을 따르기 보다는 다양한 양식에 영향을 받은 절충적인 경향이 짙다. 하지만, 1893년 타셀주택의 건축을 전환점으로 해서 등장하는 주택들은 공간구조적인 측면에서 최상층에 설치한 천창을 통해 자연광을 최대한 유입하고 실내에 설치된 유리벽을 통해 실내 깊은 곳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대건축의 주요한 특징인 투명성과 가시성을 확보했다. 또한, 온난하고 부드러운 심미감을 조성하여 브뤼셀의 습한 기후와 어두운 대지조건에 불구하고 실내환경을 최적화시키는 기능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철과 유리를 비롯해서 전통적인 재료인 목재와 석재, 스테인드글라스 그리고 모자이크 타일에 이르기까지 많은 재료들이 제각각 독립적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전체를 이루는 부분으로 유기적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호르타의 작품은 치밀하게 계획된 체계적인 완성품으로 이해될 수 있다. 빅터 호르타의 아르누보 주택은 도시구조의 반영과 건축공간의 기능적이고 효과적인 구성과 구조 그리고 다양한 재료의 치밀하고 섬세한 연출 모두를 평가했을 때 체계적인 근대건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투고(접수)일자: 2009년 3월 5일

심사일자: 2009년 3월 17일

게재확정일자: 2009년 4월 23일

참고문헌

1. Aubry, Françoise, *The Horta Museum Saint-Gilles, Brussels*, Ludion Press, Ghent, 2001
2. Aubry, Françoise & Vandenbreenen, Jos (eds.) *Horta: Art Nouveau to Modernism*. Ludion Press, Ghent, 1996
3. Borsi, F. & Portoghesi, P., *Victor Horta*, Academy Editions, London, 1991
4. Giedion, Sigfried, *Space, Time and Architecture*, Harvard University Press, 1943
5. Sharp, Denis, *Twentieth Century Architecture: A Visual History*. Image Publishing Group, Victoria, Australia, 2002
6. Colquhoun, Alan, *Modern Architecture*. Oxford University Press, London, 2002
7. Frampton, K., *Modern Architecture ; a critical history*, 3rd ed., Thames & Hudson, London, 1992
8. Curl, J. S. *Oxford Dictionary of Architecture*. Oxford University Press, London, 1999
9. Greenhalgh, Paul, *Art Nouveau 1890-1914*. V&A Publications, London, 2000
10. Escritt, Stephen, *Art Nouveau*. Phaidon, London, 2000
11. Masini, Lara-Vinca, *Art Nouveau*, Chartwell Books, London, 1984